

영향 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

## 설명자료



배포일시	2016. 8. 4.(목) 16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전재목 예보관 윤기한
		전화번호	070-7850-8220 070-7850-8231

### 폭염 원인과 전망

- 중국북부에서 가열된 공기 유입 + 대기안정으로 일사가열
-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 이어질 듯



- 폭염전망 모식도 -

- 현재(15시), 중국북부에서 가열된 공기가 서해상을 거쳐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고, 일사가열까지 더해져 수도권 지역에는 35℃ 내외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음

- 이번 더위는 중국북부에서 러시아남부까지 광범위하게 가열(평년대비 5℃ 내외)된 공기가 상층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대기가 안정되면서 구름발달의 감소로 인한 강한 일사로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임
  
- 특히, 5일(금)과 6일(토)은 지상에 유입되는 동풍기류가 데워지는 효과까지 더해져 수도권지역은 35~36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  
- 7일(일)과 8일(월) 사이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온이 조금 낮아진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은 소폭 하강하겠으나 습도가 높아 무덥겠고, 대기 불안정으로 다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
  
- 이후에도 중국에서 가열된 상층 공기가 다시 유입되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되겠음

참고 1

주요지점별 낮 최고기온 35℃ 이상 연속 발생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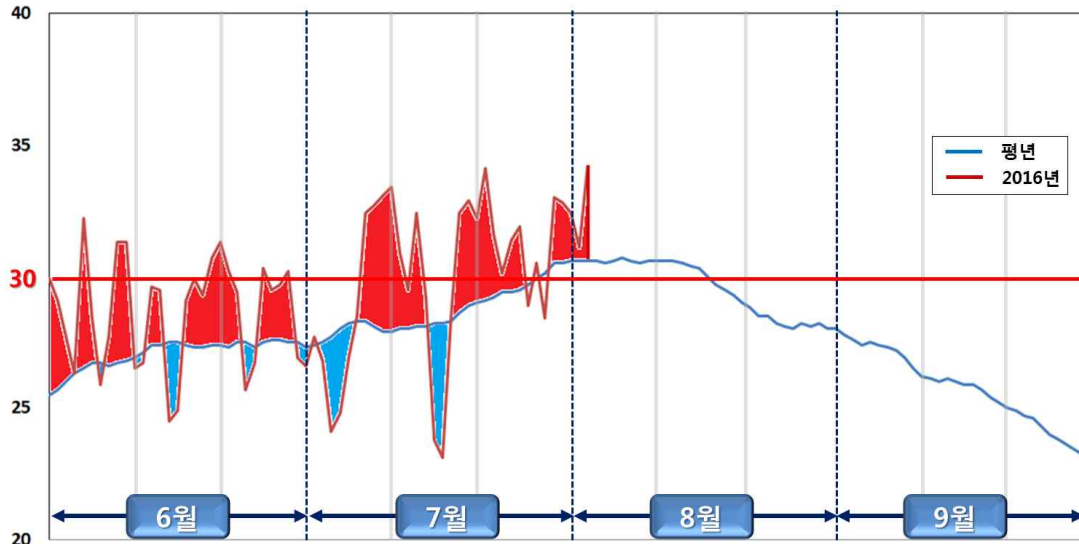
지점	1위		2위		3위		4위		5위	
	발생기간	지속일수	발생기간	지속일수	발생기간	지속일수	발생기간	지속일수	발생기간	지속일수
서울	1943년 8.18.~28.	11	1994년 7.21.~29.	9	1930년 8.6.~14.	9	1939년 8.6.~13.	8	2012년 8.1.~7.	7
인천	1994년 7.23.~26.	4	2002년 7.26.~28.	3	1949년 8.15.~17.	3	1949년 7.15.~17.	3	1943년 8.20.~22.	3
수원	2012년 8.1.~7.	7	1994년 7.22.~27.	6	1996년 8.1.~2.	2	1994년 8.12.~13.	2	1994년 7.17.~18.	2

※ 과거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지속일수는 서울은 1943년 11일, 인천은 1994년 4일, 수원은 2012년 7일로 가장 길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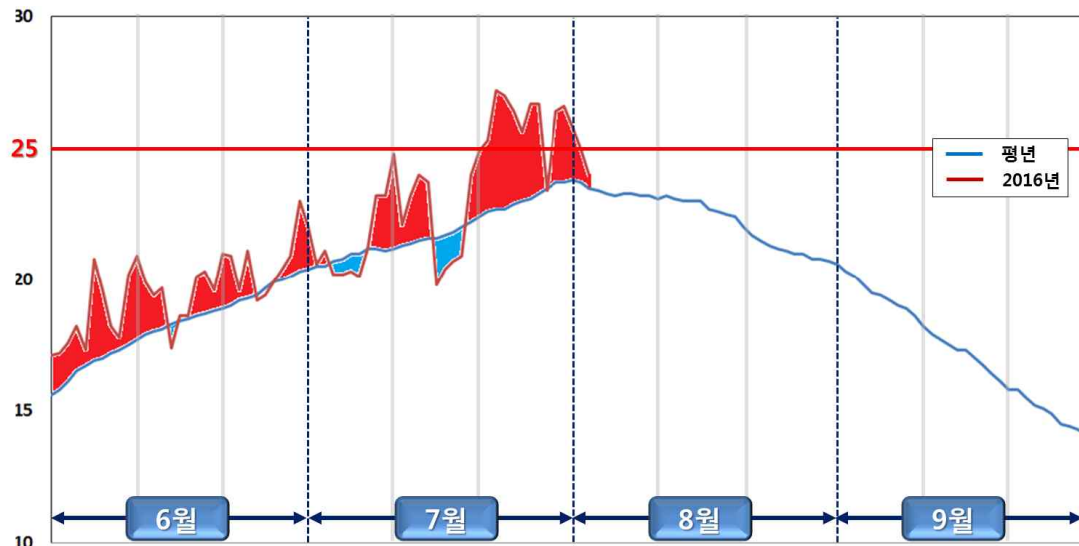
※ 최근(2010년 이후)에는 2012년 8월 서울과 수원에서 7일로 가장 길었음

참고 2

평년대비 2016년도 최고·최저기온 편차



- 평년대비 2016년 최고기온 편차 -



- 평년대비 2016년 최저기온 편차 -

※ 기후적으로 8월 중순까지는 30℃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이고, 올해 여름은 최고·최저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